

전남교육청, '2030 전남미래교육 종합발전방안' 확정

AI 스마트학교·미래형학교·학점제 학교 등 청사진 제시

온·오프라인 및 학교 밖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 가능

전라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을 전남미래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2030 전남미래교육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외부 전문가 10명과 내부 인사 3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문조사, 분야 별 세부계획 수립,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방안을 확정했으며 오는 3월 새 학년 시작 전에 일선 교육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이 방안을 통해 제시한 미래학교 청사진에 따르면, 2030년 전남 학생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변모한 최적화된 학습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개별화된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학년과 학급은 유연해진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장, 지역사회 캠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자신의 흥미,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배울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학교, 타 지역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토론하며, 이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된 학교 밖 학습장에서는 도시 스마트농업, 메이커 교육, 다양한 도서교육 등의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젝트를 하고, 창업을 준비한다.

'2030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방안'은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성인이 될 무렵인 2030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와 협력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 수 있도록 '모두가 빛나는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간, 자치, 협력, 민주, 개방의 기본 철학을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청,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전체의 43%가 넘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인수에 최적화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육성, 무학년

통합학교 등 교육과정의 유연화, 네트워크 학습체제 등 대안적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 미래핵심 역량 중심 교육 실현 △ 포용적이고 공정한 책임교육 구현 △ 미래형 교육행정·조직 정비 △ 지역 교육자치 생태계 구축을 역점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또 2030 전남미래교육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약기, 확산기, 정착기'로 구분해 시기 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도약기(2021~2023년)에는 온·오프라인 복합 교육과정을 이루고 교육과정 유연화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운영된다.

학내망 고도화 등 하드웨어 중심 그린 에듀테크 시대가 열리고, 친환경제로에너지 시설, 스마트 교실, 공간혁신, 시설통합화가 구현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첫 선을 보이며, 방과 후 마을학교가 교육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어, 확산기(2024~2027년)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넘나들며 배우는 초·중·고 통합운영학교가 등장하고 창의·융합형 스마트학교, 진로진학 연계 마을학교 운영을 본격화한다.

마지막, 정착기(2028~2030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중학교까지 확대돼 선택중심 학점제 학교가 운영되고, 빅데이터 기반 AI·창의융합형 스마트학교와 학점인증제 도입을 통한 교과교육 연계 마을학교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전남미래교육'을 앞당기기 위해 행정조직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도교육청 조직은 기획 위주로, 시·군 교육지원청은 교육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재정의한다. 학생 및 학교 수 감소에 대비해 교육행정 조직도 축소하며, 조직 운영방식도 대폭 혁신한다.

또 역량 기반 인사 혁신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생애주기 별 연

수를 강화해 미래교육 추진의 동력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제 전남도교육청은 혁신을 넘어 변화와 창조를 선제적으로 열어가는 미래교육의 중심이 되려 한다."면서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미래역량중심 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공정과 포용의 책임교육, 배움과 삶의 터전이 되는 마을이 되도록 행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순천대, '랜선 유럽미술 배낭여행' 특강

이창용 미술사 초청 특강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지역민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17일 15시에 유튜브를 통해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 미술사 초청 특강인 '사랑이란 이름으로! 마르크 샤갈&오귀스트 로댕'을 개최했다.

순천대는 지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민 문화 역량 향상'을 위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창용 미술사와 함께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농부의 화가' '프랑수아 밀레'의 삶과 예술을 다룬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순천대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당시 특강에 참석한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과 신학기를 맞은 대학생 새내기들의 문화 소양 함양을 위해 다시 한번 이창용 미술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순천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양강좌로 추천되어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랜선 유럽미술 배낭여행'의 이름 아래 순천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특강에서는 색채의 미술사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화가 '마르크 샤갈'과 그의 대표작 '나



와 마을', 현대조각의 아버지인 '오귀스트 로댕'의 상징작 '생각하는 사람' 등을 다루며, 두 예술가와 작품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그림과 조각의 세계를 함께 향유 하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송정도서관, 초등학력인정 성인교육 학습자 모집

1~3단계 과정...각 단계별 20명씩 총 60명 모집

광주송정도서관이 2021학년도 초등학력인정 성인교육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초등학력인정 성인교육은 1~3단계로 운영되고, 각 단계별로 2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해당 교육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만 18세 이상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6일까지 학습자 본인이 광주송정도서관 2층 문헌정보과를 방문 후 접수해야

한다.

단계별 교육기간은 1년이다. 1단계는 초등 1~2학년, 2단계는 초등 3~4학년, 3단계는 5~6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됐다. 오는 3~12월 주 3회(화·수·목) 수업으로 운영된다. 각 단계별 총 240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됐고, 오전 9시30분~11시30분 하루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진입 평가를 통해 2단계 또는 3단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3단계 이수 시 검정고시 없이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광주송정도서관은 각 단계별로 국어, 수학, 사회,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도 함께 운영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입학상담 및 자세한 사항은 문헌정보과(☎062-940-8932)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기자

영광공공도서관 전집꾸러미 택배 대출 서비스 운영

영광공공도서관(관장 장혜란)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전년도에 이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관내 영·유아·초등학생을 둔 독서회원을 대상으로 전집꾸러미 택배 대출 서비스인 '집으로 책 마실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책 꾸러미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요청한 전집을 추가 구입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매달 20개의 꾸러미를 택배로 발송하여 한달 동안 대여해준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이며,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운영한다. 전년도 실적으로는 8개 꾸러미를 5회에 걸쳐 2,387권 대출한 바 있다.

장혜란 관장은 "전집 꾸러미 대출 서비스를 통해 도서구입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고, 가정 내 독서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352-2690)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기자

